웃돈 시비 부르는 대리운전

광주 500여업체 난립 운영비 부담 기사들에 전가

'부르는 게 값' 요금 다툼 1주일 평균 10여건 접수

난립하고 있는 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이 일부 운영비 부담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전가해 이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에게 각종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받고, 대리운전자는 이를 보상받기 위해 이용자에게 규정 외 요금을 요구해 시비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지역 대리운전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는 모두 500여개로, 지난 2~3년 전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대리운전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탓에 업계 진입이 자유로워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져 운영부담이 늘고 결국 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대리운전기사들이 하루 평균 고정적으로 업체에 내야하는 비용은 프로그램 사용료(개당 900원), 보험료(2000원), 셔틀버스(정해진 노선으로 시내를 돌며 대리운전기사를 수송해주는 버스) 이용료 등 7000원에 이른다.

여기다가 1콜, 즉 한 차례 손님의 차를 운행할 경우 콜 수수료로 3000원을 업체에 내야한다. 또 이동비, 간식비 등을 빼면 하루 6시간 근무해 8~10건의 콜을 받더라도 운전기사에게는 돌아가는 돈은 고작 4~5만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리운전기사들은 업체에 내는 수수료와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첨단지구와 상무지구 등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시간 단축을 미끼로 웃돈을 받기도 하고, 목적지가 광주 외곽지역으로 예상되는 콜은 붙잡지도 않는다. 시외의 경우는 정해진 요금도 없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목적지 외 다른 곳을 경유할 경우에도 요구하는 '경유요금'도 기본요금의 최대 2배에 달해 다툼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광주시 북구 연제동에서는 7000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대리운전기사 전모(44)씨와 손님 마모(44)씨가 서로 주먹을 휘둘러 입건됐다. 앞서 8일에도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49)와 손님(40)이 경찰서를 찾는 등 1주일 평균 10여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발의되고 있는 대리운전법은 여전히 공론화되지 못한 채 폐기 직전인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면서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업체도 곤란한 지경"이라며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 기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고흥 야막고분에서 출토된 갑옷과 투구. 〈나주문화재연구소 제공〉

고흥서 5세기 왜계 무덤 발굴

철제 갑옷·투구 세트 등 150여점 수습

삼국시대 한반도와 왜(倭)의 교류가 활발했던 고흥에서 왜계(倭系) 인물, 혹은 왜와 밀접하게 교류한 인물이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5세기 전반 무렵 무덤이 발굴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최장락)는 고흥군 풍양면에 소재하는 전남문화재자료 218호인 고흥 야막리 야막고분을 발굴조사한 결과, 이 무덤이 왜계 석실(石室·돌방)과 계통을 같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왜색이 강한 갑옷과 투구 등의 유물 150여 점도 수습했다고 26일 말했다.

출토유물로는 갑옷과 투구 세트 외에도 3~4세기 무렵에 제작한 중국제 청동거울과 검(劒), 대도(大刀), 창(矛), 화살촉 등의 무기류와 환옥(環玉)과 곡옥(曲玉) 등 장신구가 있다.

이 중에서도 삼각형 철판을 가죽끈으로 이어 붙여 만든 삼각판혁철판갑(三角板革綴板甲)과 그런 철판을 가죽끈으로 이어붙여 만든 것으로 정수리에서 이마 부분까지 각이 진 투구인 삼각판혁철충각부주(三角板革綴衝角付冑)는 왜색이 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야막고분은 독립된 구릉에 1기만 만들었다는 특징과 더불어 분구(墳丘·봉분) 표면에 돌을 깔아 마무리하는 이른바 즙석시설(葺石施設)을 했다는 점에서도 강한 왜색을 드러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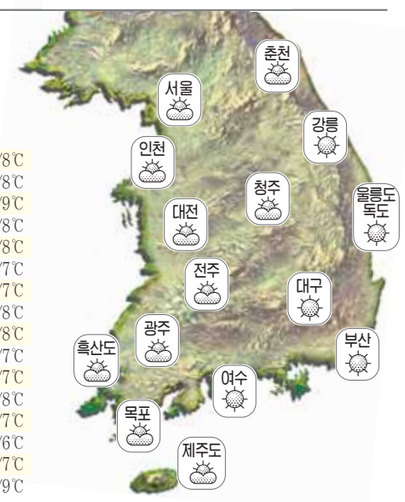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9분 해짐 17시 21분 달뜸 16시 27분 달짐 05시 52분

아침기온 영하권

건조하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1/8℃
목 포	구름많음	2/8℃
여 수	맑음	4/9℃
나 주	구름많음	-1/8℃
완 도	구름많음	2/8℃
구 례	맑음	-2/7℃
강 진	구름많음	-1/7℃
해 남	구름많음	0/8℃
장 흥	구름많음	0/8℃
순 천	맑음	-2/7℃
영 광	구름많음	-1/7℃
진 도	구름많음	2/8℃
전 주	구름많음	0/7℃
군 산	구름많음	0/6℃
남 원	맑음	-3/7℃
흑산도	구름많음	6/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감기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밀물	썰물
목포	00:56 13:38	06:18 18:58
여수	08:19 20:20	01:48 14: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수)	29(목)	30(금)	12/1(토)	2(일)	3(월)
날 씨						
최저/최고	3/13	2/9	0/8	0/9	1/9	4/10

특성화 고교 갈수록 인기

광주공고 612명 정원에 834명 지원

전남 마이스터고 3곳 경쟁률 2.7대 1

2013학년도 광주·전남지역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광주지역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정원은 4312명이며 중3 학생 5240명이 지원, 평균 1.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년도 경쟁률은 1.06대 1이었다.

지원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광주공고로 612명 정원에 834명이 지원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 광주자연과학고로 210명 모집에 358명이 지원 1.7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금파공고는 1.39대 1, 광주전산고는 1.38대 1, 광주전자공고는 1.29대 1로 모두 모집정원을 넘었다.

전남 지역 특성화고의 경우 48개교 6894명 모집에 7475명이 지원해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344명 더 지원한 것으로, 특성화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3개 학교 300명 모집 정원에 797명이 몰려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학군단 창설…ROTC 모집

광주대 학생군사교육단이 창설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초급 정예장교 양성에 나선다.

광주대 학군단은 28일 오후 2시 대학 호심관 소강당에서 김혁종 총장, 이상현 육군학생군사학교장(육군 소장), 이병권 ROTC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식을 갖는다.

광주대는 앞서 지난해 12월 학군단 설치인가를 받은 뒤, 대학 백인관에 학군단 본부를 마련하고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설공사를 벌여왔다. 또 필기시험, 체력검증 및 면접, 신체검사 등 엄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53기 후보생 25명을 선발하고 지난 1일 현판식을 가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로또 발행 10년

성인 1명당 73만원어치 샀다

오는 12월2일 로또 복권 발행 1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대한민국 성인은 1명당 평균 73만원어치 복권을 사들였다. 로또 구매 열기는 2003년 정점을 찍었다가 주춤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되살아났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을 살 수 있는 만 19세 이상 인구 1인당 로또 복권 구입액이 가장 많았던 때는 2003년으로 10만 6473원이다. 1인당 복권 구입액은 해당 연도의 연간 로또 판매량을 당시 추계인구를 나눠 산출한다.

1인당 복권 구입액은 로또가 처음 등장한 2002년엔 6857원으로 가장 적었다. 2002년 12월 로또 발행 첫주 판매액이 36억원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치는 출발을 보였다. 게임 수로 1회차에 184만 게임이 팔렸고, 7회차(640만 게임)까지 실적이 저조했다. /연합뉴스